

2019년 11월 2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경기에 대한 자신감 유입되며 상승 3분기 GDP 성장을 상향 조정(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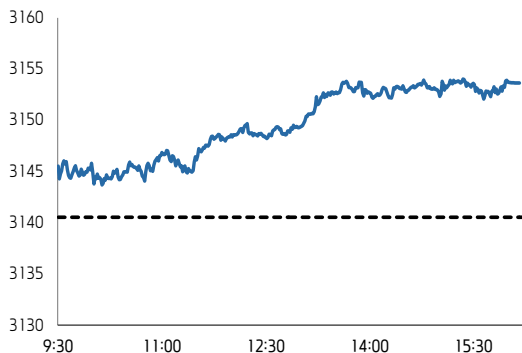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차익 매물 불구하고 경기 개선 기대 확산

미 증시는 양호한 경제지표 결과에 힘입어 차익 매물 출회에도 불구하고 상승. 특히 3Q GDP 성장을 확정치가 상향 조정(1.9%→2.1%) 되고, 10 월 소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며 4Q 에도 경기 개선 기대가 높아진 점이 투자심리 개선 요인. 한편,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도 긍정적(다우 +0.15%, 나스닥 +0.66%, S&P500 +0.42%, 러셀 2000 +0.61%)

미국의 3 분기 GDP 성장률이 수정치(1.9%) 보다 상향 된 2.1%로 발표해 지난 2 분기(2.0%) 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를 발표. 특히 재고(-0.1%→+0.2%)와 기업투자(-3.0%→-1.0%)가 수정치보다 상향 조정된 점이 긍정적 영향. 한편, 10 월 개인 소득은 전월과 변화가 없어 예상을 하회했으나, 개인 소비는 전월 대비 0.3% 증가해 4 분기에도 완만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되는 등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투자심리 개선 효과를 줌.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를 기반해 애틀란타 연은 GDPNow 는 4 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지난 19 일 발표된 0.4%보다 크게 상향된 1.7%로 발표.

연준도 베이지북을 통해 소비지출, 자동차 판매, 관광업 등을 기반으로 경기 확장세가 이어가고 있다고 발표. 물론 제조업의 경우 이전 기간 보다는 양호하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 고용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이 타이트하지만 기술 및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일자리 증가를 언급. 제조업 고용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혼재되었다고 발표. 특히 인력 부족으로 사업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임금은 적당히 증가를 유지 하고 있다고 언급. 지역별로 보면 뉴욕, 시카고 등 정체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완만하게 성장을 이어갔다고 발표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 이러한 지표 결과 및 베이지북은 최근 파월 연준의장이 의회 청문회 등을 통해 제기된 경기 낙관론적인 발언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27.85	+0.31	홍콩恒生	26,954.00	+0.15
KOSDAQ	647.39	-0.64	영국	7,429.78	+0.36
DOW	28,164.00	+0.15	독일	13,287.07	+0.38
NASDAQ	8,705.18	+0.66	프랑스	5,926.84	-0.05
S&P 500	3,153.63	+0.42	스페인	9,362.70	+0.41
상하이종합	2,903.20	-0.13	그리스	895.03	+0.36
일본	23,437.77	+0.28	이탈리아	23,485.03	-0.2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애플, 에어팟 프로 수요 급증으로 생산량 늘리라고 요청하자 상승

언더아머(+6.19%)는 신규제품 판매 급증을 이유로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되자 상승했다. 오토데스크(+5.49%)는 예상보다 개선된 실적을 발표하자 상승했다. 아마존(+1.20%)은 연말 쇼핑시즌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이어지며 3일연속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애플(+1.34%)은 에어팟 프로의 수요가 매우 강하다며 생산량을 두배 늘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ETF(IBUY)는 0.82% 상승하는 등 연말 쇼핑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관련 기업들이 상승한 점도 특징이다.

농기계 업체인 디어(-4.30%)는 실적 발표에서 무역분쟁으로 인해 내년 실적 부진을 경고한 이후 하락했다. 델(-5.26%)은 매출 가이드를 하향 조정하자 하락했다. 생명과학 고객관리 플랫폼 회사인 비바시스템(-3.67%)은 강력한 실적을 발표하자 상승 출발 했으나, 차익매물이 출회되며 결국 하락 전환했다. 보잉(-1.46%)은 지난 9월 보잉 777x에 대한 응력 테스트에 실패했었다고 발표하자 하락했다. 비행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터빈엔진에도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자 공급업체인 GE(-0.53%)도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92%	대형 가치주 ETF(IVE)	+0.42%
에너지섹터 ETF(OIH)	+2.14%	중형 가치주 ETF(IWS)	+0.46%
소매업체 ETF(XRT)	+0.40%	소형 가치주 ETF(IWN)	+0.65%
금융섹터 ETF(XLF)	+0.40%	대형 성장주 ETF(VUG)	+0.67%
기술섹터 ETF(XLK)	+0.56%	중형 성장주 ETF(IWP)	+0.5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44%	소형 성장주 ETF(IWO)	+0.79%
인터넷업체 ETF(FDN)	+0.38%	배당주 ETF(DVY)	+0.50%
리츠업체 ETF(XLRE)	+0.28%	신흥국 고배당 ETF(DEM)	+0.16%
주택건설업체 ETF(XHB)	-0.2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2%
바이오섹터 ETF(IBB)	+0.77%	미국 국채 ETF(IEF)	-0.26%
헬스케어 ETF(XLV)	+0.51%	하이일드 ETF(JNK)	+0.15%
곡물 ETF(DBA)	-0.34%	물가연동채 ETF(TIP)	-0.20%
반도체 ETF(SMH)	+0.67%	Long/short ETF(BTAL)	-0.5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35.78	+0.31%	+0.73%	+1.66%
소재	376.96	+0.20%	+1.39%	+2.22%
산업재	692.44	-0.18%	+1.22%	+3.51%
경기소비재	968.21	+0.83%	+2.67%	+1.45%
필수소비재	635.00	+0.12%	+0.44%	+1.02%
헬스케어	1,152.73	+0.48%	+2.11%	+5.08%
금융	500.03	+0.38%	+1.58%	+4.47%
IT	1,548.18	+0.57%	+1.46%	+5.39%
커뮤니케이션	178.89	+0.63%	+1.50%	+4.39%
유틸리티	318.81	+0.09%	-0.24%	-1.71%
부동산	239.49	+0.32%	-0.13%	-1.8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연말밸리 기대 여전히 유효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2% 하락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 는 0.12%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265 계약 순매수한 가운데 0.40pt 상승한 283.4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76.7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관적인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있는 데이터들이 발표되었다. 이 결과 미 증시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빌미로 한때 차익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으나,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미국 소비지출이 여전히 견고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파운드화가 여론 조사에서 보수당이 과반을 넘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12 월 12 일 있을 영국의 총선에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누구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헝의회'가 될 가능성을 제한한다. 만약 결과대로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 '질서있는 브렉시트'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렇듯 주식시장을 둘러싼 변화요인 중 ①미-중 무역협상 불화실성 ②미국 경기 둔화 우려 ③노딜 브렉시트 등 변수들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확정된 결과는 없어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연말 쇼핑시즌 기대 등과 겹쳐 연말 밸리 기대는 유효하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3 분기 GDP 성장률 상향 조정

미국 3 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수정치(1.9%) 보다 상향된 2.1% 발표되었다. 특히 재고, 기업투자 등이 상향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2 분기 보다 정부지출(4.8%→1.6%) 개인 소비지출(4.6%→2.9%) 등은 부진했다. 10 월 미국 개인소득은 전월과 변하지 못했으나 개인지출이 전월 대비 0.3% 증가해 소비 증가세는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핵심 PCE 디플레이터는 전년 대비 1.6%로 예상(yoy +1.7%)을 하회했다.

11 월 스테이스트리트 지수는 전월(79.2) 보다 개선된 80.9 로 발표됐으나 여전히 기준선(100.0)을 하회해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안전자산이 많음을 보여줬다. 11 월 시카고 PMI 는 전월(43.2)과 예상(46.0)을 상회한 46.3 으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주문(37.0→49.4)이 크게 개선된 점이 특징이었다. 10 월 내구재주문은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운송을 제외한 핵심 수주도 전월 대비 0.6% 증가해 예상을 상회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파운드화 달러 대비 강세

국제유가는 에너지 정보청이 주간 원유재고보고서를 통해 원유재고가 예상과 달리 증가하고 가솔린 재고도 급증한다고 발표하자 하락했다. 에너지정보청은 원유재고가 30 만 배럴 감소 전망과 달리 157 만 배럴 증가했고, 가솔린도 50 만 배럴 증가 전망과 달리 513 만 배럴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라크 반정부 시위대가 이란 영사관을 방화하고, 이란은 미 CIA 지령으로 반정부 폭동 정보를 수집한 8명을 체포하는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입된 점도 낙폭 축소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미국 경제지표 개선이 이어지자 대부분의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엔화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완화 및 미-중 무역협상 기대 등이 유입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질서있는 브렉시트' 기대에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견고한 경제지표에 힘입어 상승했다. 특히 3 분기 GDP 성장률이 상향 조정(1.9%→2.1%) 된 가운데 애틀란타 연은은 GDPNow 를 통해 4 분기 성장률을 기존의 0.4%보다 크게 상향된 1.7%로 전망한 점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7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과 같은 2.44 배로 발표되었으나 간접입찰이 12 개월 평균(59.7%) 보다 증가한 69.6%로 발표돼 수요가 견고한 점은 국채금리 상승을 제한했다.

금은 양호한 경제지표가 발표된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되며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9% 철근은 0.72% 하락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8.11	-0.51	+1.93	Dollar Index	98.394	+0.14	+0.47
브렌트유	64.06	-0.33	+2.66	EUR/USD	1.1001	-0.18	-0.65
금	1,460.80	-0.45	-1.36	USD/JPY	109.56	+0.47	+0.87
은	17.055	-0.77	-1.19	GBP/USD	1.2905	+0.30	-0.15
알루미늄	1,764.00	+0.63	+1.32	USD/CHF	0.9995	+0.25	+0.87
전기동	5,945.00	+0.35	+1.19	AUD/USD	0.6775	-0.19	-0.41
아연	2,297.00	-0.09	-0.69	USD/CAD	1.3283	+0.08	-0.16
옥수수	373.25	-1.32	-1.06	USD/BRL	4.26	+0.50	+1.51
밀	526.75	-0.80	+1.54	USD/CNH	7.0146	+0.00	-0.37
대두	882.00	-0.25	-2.54	USD/KRW	1177.20	+0.04	+0.61
커피	118.45	+1.37	+6.76	USD/KRW NDF1M	1176.71	+0.34	+0.54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765	+2.40	+2.05	스페인	0.392	+0.60	-3.00
한국	1.665	-3.50	-0.10	포르투갈	0.375	+0.60	-0.90
일본	-0.108	-2.00	-0.20	그리스	1.391	+2.60	+0.90
독일	-0.372	0.00	-2.50	이탈리아	1.203	+3.60	+0.30